

개교 이래 처음으로 후기 학위수여식 거행

599명이 학위 받아... 학사 377명·석사 199명·박사 23명 졸업

개교 이래 처음으로 후기 학위 수여식이 거행됐다. 지난 24일 오전 아라캠퍼스 아라뮤즈홀에서 201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려 학사 377명, 석사 199명, 박사 23명 등 총 5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허향진 총장은 이날 기념식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기에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부푼 기대도 있을 것”이라며 “넓은 시야를 갖고 뜻을 바르고 굳게 세울 것”을 조언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듣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돕는 인재야말로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라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재가 되길 당부했다.

지난해까지는 학위수여식을 매년

2월에만 시행했다. 하지만 후기 졸업생이 증가하고 후기 학위수여식이 없음을 아쉬워하는 여론이 많아져 올해부터는 전기와 후기로 나눠 학위수여식을 거행게 된 것이다. 한편, 올해 후기 학위수여식은 교육대학교 아라캠퍼스에서 같이 열었다.

총장상 및 학장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논문상 △교육대학원(석사) 홍정민(미술교육전공) △경영대학원(석사) 정상훈(관광경영학과) △행정대학원(석사) 고인자(행정학과) ▲총장상 △인문대학 문미경(독일학과) ▲총장 표창 △교육대학원(석사) 양은숙(교육행정전공) △경영대학원(석사) 김재식(경영학과) ▲학장상 △사회과학대학 양성훈(행정학과) △경상대학 정문영(관광경



지난 24일 오전 아라캠퍼스 아라뮤즈홀에서 201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려 총 5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영학과) △사범대학 오도훈(일반사회전공) △자연대학 양수지(체육학

부) △공과대학 문제영(에너지공학) 윤신혜 기자

수시 1차 입학사정관 전형 4.53대 1

지난 20일부터 4일간 실시한 2013학년도 수시 1차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252명 모집에 1141명이 지원해 평균 4.53대 1로 작년의 3.55대 1보다 경쟁률이 약간 높아졌다.

전형별로 보면 △학교장추천자 전형은 101명 모집에 514명이 지원해 5.09대 1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54명 모집에 224명이 지원해 4.15대 1 △기회균형선발 전형은 45명 모

집에 104명이 지원해 2.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글로벌미래교사’ 전형에서는 30명을 뽑는 교육대학 초등교육과에 229명이 지원해 7.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수학교육과(5.67대 1), 영어교육과(5대 1),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5대 1) 등이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호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생활환경복지학부로 12대 1

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수의학과와 관광개발학과가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대는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자들의 서류평가와 심층면접 및 토론을 통해 오는 12월 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대 수시 2차 모집 원서는 오는 9월 4일부터 4일간 접수한다.

고선주 기자

중 만방기술대와 학술교류 유학·편입 등 협력기로

제주대는 지난달 19일 중국 허난 이공대학만방과학기술대(총장 리광위)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양 대학은 이번 협정을 통해 교수 및 학생 교류·유학생 유치 홍보·만방과학기술대 3년제 전문대과정 우수 성적 졸업자의 제주대 편입학 지원 등에 상호 협력기로 했다. 이 대학은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허향진 총장을 비롯한 제주대 관계자들은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고교 졸업생 유학생 유치와 대학 간 교류협력에도 힘썼다.

제주대는 이번 방문에서 중국지 역 유학 협력기관인 중국유학기금관리위원회 유학예과학원과 공동으로 네이멍구 지닝제일고등학교, 베이징 대학부속고등학교 허난 분교를 방문해 설명회도 개최했다.

다음호 9월 5일 수요일 발행

제주대신문 주간(週刊) 발행체제로 환원

개교 60주년을 맞이한 제주대학교 역사와 함께 하는 제주대신문이 이번호부터 주간(週刊) 발행 체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제주대신문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취입난과 맞물려 학생기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주간발행 체제에서 격주간 발행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학 언론의 역할과 사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이번호부터 5년만에 8·4면 주간 발행체제로 환원합니다.

1954년 5월 27일 창간한 제주대신문은 월간·격주

간·순간 발행을 유지해오다가 지난 1990년 3월부터 신속한 뉴스 전달을 위해 8면·4면으로 주간 발행했습니다. 1994년 9월부터는 8면 체제로 증면되어 기상언론과 다른 시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접근하여 기사화하고, 언론사로서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온 바 있습니다.

새롭게 주간 발행하는 제주대신문이 대학 구성원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기(公器)로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는데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주대신문 논설위원에 교수 24명 위촉

제주대신문이 오는 9월 1일자로 논설위원을 새롭게 위촉합니다. 논설위원들은 앞으로 사설 등의 집필을 통해 대학과 사회 문제에 대해 명쾌한 방향타를 제시해줄 것입니다. 다음은 논설위원 명단.

▶인문대학 △허남춘(국어국문학과) 교수 △김동운(국어국문학과) 교수 △박여성(독일학과) 교수 △전영준(사학과) 교수 △최현(사회학과) 교수 △서영표(사회학과) 교수 △김지완(철학과) 교수 ▶사회과학대학 △남진열(행정학과) 교수 ▶경상대학 △김정희(경영학과) 교수 △김동욱(회계학과) 교수 ▶사범대학 △송현정(국어교육과) 교수 △오상학

(사회교육과) 교수 ▶생명자원과학대학 △고성보(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 ▶해양과학대학 △조은일(환경공학과) 교수 ▶자연과학대학 △홍희숙(의류학과) 교수 ▶공과대학 △김태일(건축학부) 교수 ▶교육대학 △전제웅(초등교육과 국어교육전공) 교수 △박남제(초등교육과 컴퓨터교육전공) 교수 ▶수의과대학 △손원근(수의학과) 교수 ▶간호대학 △현미열(간호학과) 교수 ▶예술디자인대학 △허대식(음악학부) 교수 ▶의학전문대학원 △김송이(의학과)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고호성(법학과) 교수 △김현수(법학과) 교수

‘제주대 산학협력 가족회사’ 12일 출범

82개 업체와 협약

제주대 산학협력 가족회사가 지난 12일 제주 KAL호텔에서 열린 ‘제주대 LINC사업단 가족회사 워크숍’에서 첫 결연을 내디뎠다.

LINC사업단은 이날 △제주형 품격서비스 △정정 헬스푸드 △부티향장 및 물 △휴양형 MICE-회의, 포서관광, 컨벤션, 이벤트와 전시 등 4개 특성과 분야에서 지역 82개 참여업체와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대 산학협력 가족회사’는 기업과 대학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는 회사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기업은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수익을 창출하고, 대학은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을 완성함으로써 기업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LINC사업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을 육성하는 국책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단은 이를 위해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혁신하는 데 지원하고 있다.

이상백(LINC사업) 단장은 워크숍에서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가족회사를 통해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사령

김명지(정치외교학과 2)
편집국장에 임명함

김소영(국어국문학과 2)
문화기획부장에 임명함

김동현(언론홍보학과 2)
여론사회부장에 임명함

김윤희(국어국문학과 1)
최희은(국어국문학과 1)
정한별(국어국문학과 1)
성지아(언론홍보학과 1)
윤신혜(화학과 1)
고선주(생활환경복지학부 1)
가자에 임명함
이상열 1일자
제주대신문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Center for ZAINICHI JEJU People

재일제주인과 함께 하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재일제주인센터는 재일제주인의 삶과 역사를 새로이 조명하여, 그들의 개척정신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고자 합니다. 제주도민과 재일제주인과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 역할은 물론, 재일제주인·재외한국인 연구의 중심 센터가 되겠습니다.

재일제주인과 함께 새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zainichijeju.jejunu.ac.kr>
전화번호 : 064)754-3975~3978
팩스번호 : 064)724-8855

사설

후기 학위수여식 거행과 관행 깨기

우리대학교의 개교 이래 첫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 24일 아라뮤즈홀에서 거행되었다. 박사 23명, 석사 199명, 학사 377명 등 599명이 학위를 받았다. 우리는 졸업생 모두에게 축하를 보내고 앞날에 광영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201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대학본부에서 오랜 관행을 깨고 처음으로 후기 학위수여식을 거행한 데 대해 우리는 박수를 보낸다. 60년 동안 한 번도 갖지 않았던 행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며 그에 수반되는 다소의 번거로움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결단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는 이번을 계기로 우리대학교의 좋지 않은 관행들이 하나둘씩 과감히 깨지기를 바란다. 관행을 깨는 것이야말로 발전과 도약의 실천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학본부는 물론이요 구성원 모두가 제 위치에서 부정적 관행을 제거해 나간다면 어떠한 위기도 거뜰히 돌파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요즘 우리대학교의 취업률 하락 문제가 지역언론에서 제기되었다. 우리대학교 취업률은 47.7%로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194개의 4년제 및 산업대학 중에서 170위이며, 이는 2005년(51.8%) 이후 최저치라는 것이다. 허 총장이 취업률을 70%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이는 심각한 현안일 수밖에 없다. 직업능력개발원을 취업전략본부로 승격시키

고 갖가지 취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도 취업률은 왜 되레 하락한 것일까.

우리는 취업 문제의 핵심 중 하나를 우리 학생들의 그것에 대한 인식이 막연하고 안이하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 학생들의 상당수는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를 제대로 그리지 못한 채 대학을 다니는 것 같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학교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입생 때부터 인생 설계를 착실히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차제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개혁할 것을 주장한다.

현재의 오리엔테이션은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간단한 대학생활 안내와 학생들의 친목 증진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서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시켜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기개발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장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완전히 혁신해야 한다. 학교가 적극 개입하여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신입사원 교육에 준하는 신입생 대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요, 나아가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개혁은 우리에게 주어진 관행 깨기의 중대 과제다.

시작에서 끝을 보라

우리 옛 성현들은 '사물이 극에 달하면 돌아온다.'라면서, 누군가가 잘못한다면 속된 말로 '그가 더 잘 나가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왜냐하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일어서면 일어설수록 약해지고 넘어질 날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좋은 일, 곧 사필귀정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짧거나, 우리의 인내심이 부족한 탓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투자대비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폭력'을 사용하는 것 만한 게 없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다 놓고, 스스로의 목을 죄일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효율적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학문기초가 흔들리고, 상식이 무너진다. 실제로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과 대학의 기초학문 부실이라는 '심한 보복'을 경험하고 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를 염두에 두지 않을뿐더러, 목표도 삼지도 않는다. 특히 교육 분야는 더 그렇다. 왜냐하면 교육은 뽀족한 끝, 곧 첨단(尖端)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가운데, 저 밑바닥의 지지대를 구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랄 것도 없이 첨단을 말

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니 교육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다.

새 학기이니만큼 다들 열정으로 가득하다. 첨단에 못 미치는 수강신청시스템을 탓하면서, 학점 잘 주는 교수 연구실을 두드려 추가신청을 하는 열정을 누가 탓할 수 있으랴. 88만년 세대의 불안한 미래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을 댓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느라 첫 주 강의를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 누가 모르겠느냐는 말이다. 그리고 밤을 하얗게 지새운 아르바이트에 지쳐 강의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청춘의 고단함은 이 시대에 유행하는 '야경주독(夜耕書讀)'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 번쯤은 이 학기의 끝을 돌아보기 바란다. 그렇게 하고서도 좋은 학점이 나온다면 그건 사필귀정이 아니다. 더구나 이번 학기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날이 있다. 살아가면서 사필귀정이라는 좋은 일을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정의가 감물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누군가의 말처럼 '무소의 뿔처럼 무뎌버려, 하지만 힘차게 걸어가야' 한다. 그게 투자대비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심한 보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여기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스승의 가르침 영원히” 11명 교수 정년 퇴임

이달말로 정년을 맞이하는 교수 11명의 퇴임식이 30일 오전 10시부터 아라뮤즈홀(아라캠퍼스)에서 열린다.

퇴임을 맞이하는 교수는 진영일(사학과), 천영수(경영학과), 최원철(경제학과), 현진오(수학교육과), 강영길(생물산업학부), 최치규(물리학과), 윤창훈(식품영양학과), 강영주(식품생명공학과), 좌종근(전기공학과), 김영용(초등교육과), 강동언(미술학부) 교수 등이다.

진영일(사학과) 교수는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 서울대에서 문학석사,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7년부터 전임강사로 제주대와 인연을 맺어 25년 동안

재직했다.

천영수(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1년부터 전임강사로 출발해 28년 동안 강단을 지켜왔다.

최원철(경제학과) 교수는 동경 창가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4년부터 전임강사로 제주대와 함께해 31년 동안 수많은 후학을 양성했다.

현진오(수학교육과) 교수는 한양대 대학원에서 이학박사를 취득했다. 1977년부터 전임강사로 출발해 대학에서 35년 동안 학문 연구에 몰두해 왔다.

강영길(생물산업학부) 교수는 알칸사스대 대학원에서 농학박사를 취

득했다. 1985년부터 조교수로 제주대

와 인연을 맺어 27년 동안 재직했다.

최치규(물리학과) 교수는 경상대 대학원에서 이학박사를 취득했다. 1982년부터 전임강사로 제주대와 인연을 맺어 30년 동안 대학을 지켜왔다.

윤창훈(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동국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에서 농학박사를 취득했다. 1981년부터 조교수로 제주대와 인연을 맺어 30년 동안 연구에 몰두했다.

강영주(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부산수산대학 대학원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했다. 1977년부터 전임강사로 제주대와 인연을 맺어 36년 동안 후

학을 양성했다.

좌종근(전기공학과) 교수는 성균관대 공학박사를 취득했다. 1979년부터 전임강사로 제주대와 인연을 맺어 33년 동안 강단을 지켜왔다.

김영용(초등실과교육전공) 교수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농학박사를 취득했다. 1978년부터 전임강사로 제주대 교육대학과 인연을 맺어 34년 동안 재직했다.

강동언(미술학부) 교수는 세종대 대학원에서 미술학 석사를 취득했다. 1982년부터 전임강사로 제주대와 인연을 맺어 30년 동안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김명지 기자



박세필 교수팀, 소 복제 성공률 두 배 높여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

박세필 교수팀이 동물의 복제 성공률을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박세필(분자생명공학전공) 교수와 (주)미래생명공학연구소(소장 김은영)는 제주특우 복제에 사용되는 체세포핵이식방법에 ‘무염색 난자핵 제거방법(Oosight Imaging System)’을 접목시켜 기존 방법보다 두 배 이상 효율성을 높인 복제수

정란의 유전자 발현패턴의 원인을 규명했다.

기존의 체세포 핵이식 기법은 복제 동물 출산율이 1~5% 정도로 매우 낮아 연구 성과가 더뎠다. 특히 복제에 사용되는 소 난자는 세포질 내에 지질이 쌓여 핵이 보이지 않아 형광 염색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복제효율을 저해하는 원인이 됐다. 이외에도 핵이식 과정동안 기계적·화학적 으로 여러 과정을 거치는 데에 따른 위험 등 이러한 기존 방식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박세필 교수 팀은 새롭게 개발한 난자 안의 핵을 염색 없이 빼내는 ‘무염색 난자핵 제거방법’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추출한 핵 제거난자에 체세포 핵을 주입하는 체세포 핵이식방법으로 복제수정란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박세필 교수는 “인간 난치성 유발 질환동물 모델개발에 기술적 자료를 제공해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선주 기자

생활환경복지학부
AFPK 인증 취득

이번 학기부터 생활환경복지학부(학부장 김혜숙 교수)의 특정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는 재무설계 업무에 관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생활환경복지학부는 지난달 30일 한국FBSB로부터 AFPK자격인증을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생활환경복지학부 아동생활복지전공 내에 개설돼 있는 가계경제론, 가계재무설계, 투자와 보험 교과를 이수하면 따로 AFPK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자격인증을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AFPK자격인증이란 재무설계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인증하는 자격증으로서 개인종합재무설계업무에 대한 국내 전문자격에 해당한다. 재무설계업무는 고객에게 맞는 금융 및 자산설계를 지원하고 권유하는 일이다. 최희은 기자

내년부터 모바일 기기로 수강 가능

“5개 강좌 시범 운영키로”

인터넷으로만 들을 수 있었던 이러닝 수업을 내년부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정보통신원(원장 김일환)은 ‘스마트 러닝’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 1학기부터 우선적으로 5개 강좌를 시범운영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러닝’은 기존 이러닝 시

스템의 연장선이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기기에 앱을 설치하면 강의 받기에서부터 과제, 학습노트, 토론, 질의응답 등 모든 강의실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다.

고혜영(무역학과 1)씨는 “지난 학기에 이러닝 과목을 수강할 때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아 수업을 듣는데 불편함을 느꼈다”며 “스마트 러닝은 컴퓨터가 없어도 우리가 항상 소

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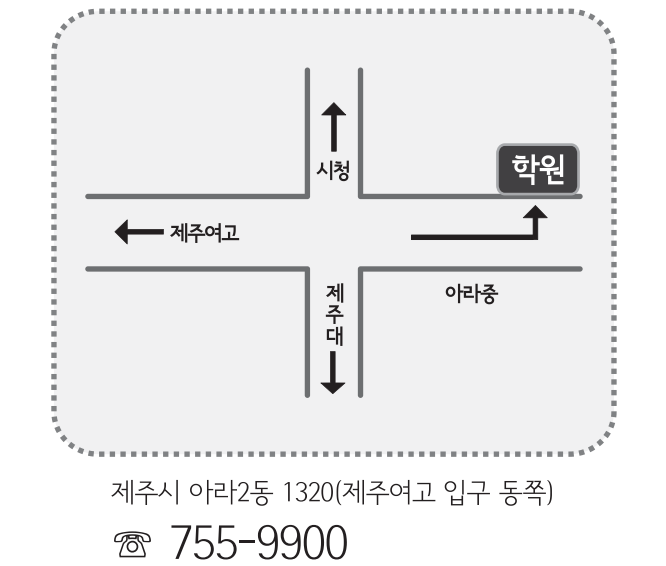
이에 앞서 제주대는 ‘유·무선 통합 커뮤니케이션’을 지난 3월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김윤희 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창진	편집인·주관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un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Speaking이 되면 세계가 보인다.”

♣외국어교육원 speaking 강사 소개♣

- ▶ **Anthony(Tony) Little** - 영국
 -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석사과정 중)
 - University of Wales, UK (학사)
 - English Language Institute(ELI) TOEFL instructor, 서귀포
 - 4차 외국어특성강좌 : Level 1 Conversation - 오후 6시, Level 2 Conversation - 오후 7시
- ▶ **Chris Harley** - 호주
 - Murdoch University, Australia (English Literature 학사)
 - CELTA Certificate - Oxford House College, UK
 - Conversation English Instructor, 이화여자대학교
 - 4차 외국어특성강좌 : Confidence in Speaking(초급) - 오후 6시, Language Focus(중급) - 오후 7시, Culture Discussion(고급) - 오전 9시~11시, 화목
- ▶ **Kiyomi De Freitas** - 미국
 - Touro University International, USA (석사)
 - Clark Atlanta University, USA (학사)
 - Native Speaker English Teacher, 서울특별시
 - Recipient of the 2010 Native Speaker English Teacher of the Year Award
 - 4차 외국어특성강좌 : Level 1 Conversation - 오전 8시, Level 3 Conversation - 오전 9시
- ▶ **Jessica Sicard** - 미국
 - University of Groningen, Master of Applied Linguistics (석사)
 - English Instructor, Jungchul English Academy, 서귀포
 - 4차 외국어특성강좌 : Level 2 Conversation - 오전 9시, Level 3 Conversation - 오전 8시, Movie English (중고급) - 오후 12시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Foreign Language Institute
☎ (064)754-2291~2292, http://flij.jejuunu.ac.kr

제32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제58주년을 맞이하여, 제32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합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응모분야 : 논문 A4용지 10~30매 내외(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 출력물과 논문 파일 C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 안됨
- 접수마감일시 : 2012년 12월 10일(월) 18:00까지
-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 발표 : 제주대신문 2013년 신년특집호(2012년 1월 1일 발행 예정)
- 시상내역 :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 *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총장 임용제 성토장된 공청회… “대표성 문제 있어”

“고등공무원임용령 대로 학생·직원의 추천권 보장하라”
교수회 “제도개선위원회서 논의해 대학본부에 제출”

지난 23일 총장 임용제도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대학의 일부 구성원들이 총장 임용제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성토를 벌였다.

이날 오후 2시 경상대학 2호관 중강당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경원(행정학과 교수) 연구책임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과 객석토론에서 연구내용에 대해 지적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정토론에서는 고영상(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준(건축학부) 교수, 김태완(공무원 직장협의회) 직원 대표, 정재우(총학생회 부회장) 학생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영상 교수는 활동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총장추천위원회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추천위원회를 검증위원회가 견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한 “제7조 추천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총장임기만료 9개월 전으로 돼있다’면서 ‘9개월동안 대학이 총장후보를 선정하는데 관심이 쏠려 교육, 연구, 학사행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교수는 “총장추천위원회의 의원들이 소속 단과대학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00분의 20 이상을 여성에 할당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그는 “특정 단과대학에 여성의 원이 편중돼 한쪽으로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교수는 연구용역팀이 단순 무작위표집방법을 통해 대표를 뽑자는 방법을 제시한 것에 대해,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교수는 “ ‘추천위원회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보면 ‘총장이 후보선정 공고에 따라 후보로 접수할 때에는 (중략) 교육·지원시설, 연구시설, 기타시설 및 동 규정 제3조의 기타 하부조직의 장’을 학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제한한다는 규정은 교원의 과도한 잠점권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본부장 이상급의 학무위원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순수하게 연구를 하는 교원까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이 규정이 참정권 제한은 물론 역으로 교육지원시설, 연구시설, 기타시설 등의 장은 모두 총장의 측근 또는 파벌이라는 인식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심겨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공모위원회에서 교원은 추천하고 직원은 선발해, 위원 구성에 형평성이 결여된 점 등을 언급했다.

이날 각각 학생 대표, 직원 대표로 참가한 정재우 부회장과 김태완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은 학생과 직원이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에 구성원으로



지난 23일 열린 공청회에서 김태완(공무원직장협의회) 직원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하지 못하는 데에 우려를 표했다.

정재우 부회장은 “학생들이 총장 선출을 할 권리가 배제돼 있다”며 “이는 명백히 고등공무원임용령 제2장 2의 대학의 장 임용추천에 관한 규정과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총학생회가 학생들에게 내놓은 자료를 통해서 “(대학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대학의 장을 뽑는 기구에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보다는 교수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강원대는 학생들이 위원으로서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김태완 회장은 직원도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공무원직장협의회

학생 커뮤니티 ‘제코’ 개통… 아고라 꿈꾼다

김형주(전산통계 4) 씨가 개발해

제주대 학생을 위한 대학 커뮤니티가 문을 열었다. 바로 김형주(전산통계학과 4)씨가 개발한 제코(JECO, http://www.jeco7.net)다.

김형주씨는 개인적으로 다른 시도(市道)와 떨어진 제주 지역의 한계로 채용정보, 공모, 각종 시험, 자격증 등의 취업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 제주대 학생들의 모든 고민이라는 것을 알게된 그는 같은 학교 학생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

김형주씨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다. 제주대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할 공간이 부족했다고 느꼈던 탓인지 학생들 사이에서 얘기가 없는 것 같다”며 “학생들이 설문조사나 ‘시사/토론’ 게시판 등을 이용해 시



것. 그는 “대학생으로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학생들이 마련되지 못했다”

캠퍼스 생활, 고민상담, 벼룩시장, 자취방 임대, 구인구직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위한 게시판도 마련했다.

그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제코’ 지금 모바일웹을 만들고 있다.

그는 “제코가 제주대 학생들의 아고라로서 학생들간의 소통을 위한 자리,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명지 기자

거점대 총장협, 취업률 산정 기준일 변경 요청

“9월 1일이 합리적”

전국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이 대학 평가에 지표로 쓰이는 취업률 산정 기준일의 변경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다.

‘전국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회장 허향진)’는 지난달 26일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취업률 산정기

준일을 현행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일까지 당해 연도 2월 졸업생이 취업할 확률이 낮아 취업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취업확정자도 6월 이전에 발령이 나지 않으면 취업률 집계에도 포함되지 않아 허점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재정회계법의 조속한 처리 및 불합리한 부분 개선 △대학 시간강사로 지원 포몰러 개선(안) 등의

“대학의 화합 이끌어낼 것… 재정 지원 확충에도 만전”

인터뷰 송기민 신임 사무국장

지난 1일자로 취임한 송기민(사전·49) 사무국장은 진주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90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울산광역시교육지원청 기획관리국장, 교과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 지방교육재정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성과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대신문은 지난 22일 송기민 신임 사무국장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 취임 소감은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대학의 사무국장으로서 취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제주대 직원들은 우리 대학이 거점국립대학을 넘어 고등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내가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안은

“이제까지 주로 교육행정직에서 근무해왔다. 이번에는 교육정책팀 행정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본래 사무국장은 학교를 이끌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총장의 참모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다. 우선 총장을 보좌해 사무국이 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다. 그리고 사무국이 중심이 돼서 학교 구성원들의 화합을 이끌어내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인가

“앞으로도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거나 스터디 그룹을 장려할 생각이다. 또 직원들끼리 좋은 정보는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대학 재정이 줄고있어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작년에 비해 학교 재정 운영이 어려워졌다. 부족한 학교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우리 대학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직원만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힘써야 한다.

특히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직원은 교수와 학생을 돕고 교수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 이처럼 학교 구성원 전체가 노력해 종합적인 힘을 만들어내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김윤희 기자

“와라와라”

“와라와라”는 소리가 크게 울리는 모양이라는 뜻의 제주어입니다.

글·그림/김소영 기자

수강신청 당일

PC방에 들어온 △△학과(사)수미상

○○학과 전공을 듣기 위해 클릭하는데

해당 학과 이외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공이 아니무니다”

수강신청

“성공이 안되무니다”

“결공을 못하무니다”

“지역상인도 따뜻하게 끌어안으며 간호도 배웠어요”

4일간 동문시장 등지서 상인 건강검진 봉사활동 벌여



지난 22일 동문시장에서 간호학과 학생이 동문시장 상인의 혈압을 재고 있다.

“간호 실습시간이 부족했는데,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간호대학이 지난 21일부터 4일간 전 통재례시장을 돌아다니며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에 나섰다.

간호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교수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제주시 동문

재례시장 고객지원센터 앞에서 ‘건강증진 발대식’을 열었다.

봉사단은 동문시장 일대와 보성시장, 서문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 체크, 문진 및 통재례시장을 돌아다니며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에 나선다.

이은주 간호대학장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장사하는 시간이 병원이나 보건소가 문 여는 시간과 겹쳐, 따로 검

사람들

신애경·현동걸 교수, 강민석 원생 우수연구논문상 수상

신애경(사진 위), 현동걸(가운데) 교수(초등과학교육전공)와 강민석(초등과학교육전공 교육대학원 박사·아래)씨는 지난달 26·27일에 강원대에서 열린 ‘2012년 한국과학교육학회 제62차 하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구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들이 공동 발표한 논문은 ‘교사들의 대화유형이 전지의 연결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전에도 신애경, 현동걸 교수는 지난해 열린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전류와 자기장 관련 실험수업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고찰’ 연구는 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경호 교수, 세계인명사전 ‘Man of the year 2012’ 등재

김경호(언론홍보학과)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는 미국인명정보기관(ABI, Ameri-

can Biographical Institute)으로부터 ‘Man of the year 2012’로 선정됐다.

김경호 교수는 국내 학회 및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성과로 국제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2년 판에도 등재된 바 있다.

문일주·황정봉 교수 ‘우수과목’ 선정

문일주(해양산업경찰학과·사진 위)·황정봉(무역학과·아래) 교수의 과목이 ‘2012년 1학기 OCU 컨소시엄 강의평가’에서 우수과목으로 선정됐다.

교과과목은 ‘영화로 배우는 자연재해’(문일주 교수), ‘보험과 생활’(황정봉 교수)다.

OCU는 14개 대학과 2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01년 3월에 개교한 한국 최초의 정규 4년제 사이버대학이다.

한편 현재 OCU 컨소시엄에는 제주대 등 1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영광스런 학위 취득을 축하합니다”

박사(23명)				학사(377명)			
법학 육평 법학박사 학위논문명 한국과 중국의 회사법상 주식회사 이사회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이사의 지위를 중심으로-	정민주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Transversally harmonic maps between foliated Riemannian manifolds	사학과 김영민	윤문현	오윤창 김재방 유화진	경상대학 경영학과 강형진 고승우 백건우 정문규 이영중 현정우 고상희 양정원 이상훈 진경민 현수연 김미정 김수진 부동민 고은선 김가민 전미리 진향숙 정립봉 백립 장국봉	한민국 현병철 고은	
	가정관리학 이은정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버추프로젝트를 활용한 예비부부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법학과 임주리	수학교육전공 홍근현 고민철 김민지 이진석 현진아	건축공학전공 박진수 김세지 이창희	식품영양학과 변진호 고상원		
	의류학과 임은숙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 송이 (Scoria)를 이용한 면직물 과 견직물의 염색성 및 기능성에 관한 연 구	행정학과 현미경	물리교육전공 고혜련 김소율	환경공학전공 차준호 양기주 임세택	수학과 박성주 박근형 양정현 신용민 강주란 소재형 이연정 최승민		
임계경 법학박사 학위논문명 學校暴力 對策에 관한 研究 The story on the measure for school violence	체육학 노동진 체육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지역 비만 초등학생의 인슐린저 항성 및 대사 증후군 유병률과 건강증진 프로 그램의 효과	정치외교학과 오신정	화학교육전공 강미에 김상훈	식품공학전공 박경자	관광경영학과 고희준 부정훈 김창수 강태구 김민범 김지은김휴나 부지은 정문영 김연선 정선영 최다연 허윤희 왕순 진미 하혁 선 현채원 신현철 장효경	가정관리학과 김성아 김소망 김진선 박근혜 박이형 현수미 고수연 강지원 김영선 문수영 부지영 임소라	
행정학 진창남 행정학박사 학위논문명 사회화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에너지응용시스템학부 기계공학 탄충단 공학박사 학위논문명 Backstepping Based Control Algorithm of Roll-to-Roll Web System for Printed Electronics	관광경영학과 바트르잡스감바야르	미술교육전공 김혜정 김형신 강초희 고은경 김세은 손희정 이종묵 홍정민	식품공학전공 박경자	회계학과 신담호 고유종 송민화 현우준 마은정 이강인 현경생 홍은영 장양 장탁균	전산통계학과 강현택 강진환 양대준	
경영학 송영식 경영학박사 학위논문명 증권회사 HTS 서비스품질이 관계품질과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체육학 노동진 체육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지역 비만 초등학생의 인슐린저 항성 및 대사 증후군 유병률과 건강증진 프로 그램의 효과	무역학과 두빈	음악교육전공 고미경 백영숙 오지영	환경생명공학전공 안현진	무역학과 임창범 조제웅 강병석 이상진 박소연 안명종 진원호 김현아 유춘화 윤지혜 마보람 오진미 오효주 무천 손예 조일 림 부가 이경아	의류학과 김현아 강승민 김미정	
관광경영학 김영남 관광학박사 학위논문명 미로체험의 재미, 플로우, 즐거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메카트로닉스공학 가네시탕가라지 공학박사 학위논문명 Roll-To-roll Tension Control- ler design based on fuzzy Logic for manufacturing printed elec- tronics	관광개발학과 문영호	초등국어교육전공 이진희 강지인 김동철 이경은 김경미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허유미 김혜숙 양보연 이성미 이소희	경제학과 오종민 김성현 강수림 고명준 이민관 이상용 이우섭 조석주 강수연 오솔	체육학부 레저스포츠학과 양민주 임주리 양수지 연효봉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 고상범 교육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지역 맹공이 (Kaloula borealis)의 생태에 관한 연구	해양생명과학 양수동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Secondary Metabolites and their Biological Activity from Marine Bioresource : Marco-alga and Microorganism	생명공학과 강동근, 한송이	초등수학교육전공 고영주 부경임 부은영 임이랑	스토리텔링학과 장공남	관광개발학과 김현주 장소영 현민희 조은경 송승호 이현주 고석빈 부경남 강익건 문진영	수학·전산통계학부 전산통계학과 백민수 김성곤	
생명과학 오대주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Molecular analysis of Korean Apodemus mitochondrial genome and possible historical migration routes of A. chejuensis	의학 최연희 의학박사 학위논문명 Neuroprotective Mechanisms of Antioxidant Dieckol against Microglia-mediated Neurtotoxicity and Mitochondrial-dependent Neuronal Cell Death	해양생명과학과 최진영, 박소현	초등과학교육전공 권은정 김석주 김경아 김주연 문미희 박현철 최영미	영어영문학과 김현진 강유진 고미현 유선화 윤나리 고은혜 백선미 네오날린엠베탄단	경영학과(야) 이경태 고동기	공과대학 식품생명공학과 강운석 박정아 정현주 김지은	
해양생명과학 양수동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Secondary Metabolites and their Biological Activity from Marine Bioresource : Marco-alga and Microorganism	의학 최연희 의학박사 학위논문명 Neuroprotective Mechanisms of Antioxidant Dieckol against Microglia-mediated Neurtotoxicity and Mitochondrial-dependent Neuronal Cell Death	토목해양공학과 강명수 이준호	초등음악교육전공 김소연	독일학과 김지혜 오의상 유성령 이정진 문미경	회계학과(야) 원선희 한다름 함홍주	기계시스템공학부 기계공학과 김기남	
자나카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Searh of new bioactive components and exploitation of their health promoting potentials as functional ingredients from brown seaweed Ecklonia cava and edible sea cucumber Holothuria edulis	의학 최연희 의학박사 학위논문명 Neuroprotective Mechanisms of Antioxidant Dieckol against Microglia-mediated Neurtotoxicity and Mitochondrial-dependent Neuronal Cell Death	전산통계학과 김경연	초등영어교육전공 강승태 고민정 김희아 이효숙	일어일문학과 이성훈 변경문 김지나 김혜남 이어진 이유리	관광경영학과(야) 송세훈 권태영 고유재 남도엽 차다영 이상희 황지환	기계시스템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 과 김민혁 김성택 배성진	
이영득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TRANSCRIPTOME-WIDE DISCOVERY OF INNATE IMMUNE-RELATED GENES AND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THE INFLAMMATORY/ APOPTOTIC PATHWAY IN MANILA CLAM (Ruditapes philippinarum)	의학 최연희 의학박사 학위논문명 Neuroprotective Mechanisms of Antioxidant Dieckol against Microglia-mediated Neurtotoxicity and Mitochondrial-dependent Neuronal Cell Death	의류학과 강은영	초등컴퓨터전공 이지현 고영남	영어영문학과 김현진 강유진 고미현 유선화 윤나리 고은혜 백선미 네오날린엠베탄단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김대순 문준혁 조아라 문준영	통신공학과 박현민 김윤준 윤호현 기신 마소효 서 지 왕원	
모스타피주 이학박사 학위논문명 GROWTH, BIOCHEMICAL COMPOSITION AND REPRODUCTIVE ACTIVITY OF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THUNBERG,1793) IN DUfferENT ENVIRONMENTS AND CULTURE CONDITIONS	의학 최연희 의학박사 학위논문명 Neuroprotective Mechanisms of Antioxidant Dieckol against Microglia-mediated Neurtotoxicity and Mitochondrial-dependent Neuronal Cell Death	컴퓨터공학과 안연준	초등미술교육전공 조애림	일어일문학과 이성훈 변경문 김지나 김혜남 이어진 이유리	영어교육과 양지수 김용재 양정은 문지현 박나리 양미경 홍유리 김은유 양아영	에너지공학과 문제영	
수학	한국학협동과정 강소전 문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도 심방의 맹두 연구 -기원·전승·의례를 중심으로	컴퓨터공학과 안연준	초등교육방법전공 강은심	중어중문학과 김병직 고동규 김수진 양지은 이수지 김도광 김민경 오화연 강유리 고연주 김나영 백현정 송은숙 이한나	영어교육과 양지수 김용재 양정은 문지현 박나리 양미경 홍유리 김은유 양아영	컴퓨터공학과 김재원 양현일 오경석 박정권 김준영 문경대 임성환 정혜림	
	석사(199명)	한중과 강주희 류정정 송은정 홍기욱	경영대학원 마케팅관리전공 김병찬 이대경 박동춘 김재식 김정의 오상봉	중어중문학과 김병직 고동규 김수진 양지은 이수지 김도광 김민경 오화연 강유리 고연주 김나영 백현정 송은숙 이한나	영어교육과 양지수 김용재 양정은 문지현 박나리 양미경 홍유리 김은유 양아영	전자공학과 고경필 변광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오윤석 권수진	경영정보학전공 문종현	영어영문학과 김현진 강유진 고미현 유선화 윤나리 고은혜 백선미 네오날린엠베탄단	영어교육과 양지수 김용재 양정은 문지현 박나리 양미경 홍유리 김은유 양아영	전기공학과 강현우 김봉일 강진욱 김대호 박재연 양영호 윤형석 송상규 이현수 정우철 홍성민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김연신 김지영 박지은 부은순 양은숙 양정숙	지방자치전공 송영석 홍순재 김명희 오대길 박진우 홍훈기	동양어문학과국 국어국문전공 석진명 이동운 홍준섭	영어교육과 양지수 김용재 양정은 문지현 박나리 양미경 홍유리 김은유 양아영	생명화학공학과 고승유 김진제	
		상담심리전공 강경미 강정훈 김녀 김근실 김근영 김 민아 김복희 김산옥 김선순 김연옥 서 지영 성영실 송순화 송주연 안계선 이 성욱 정순선 정창훈 최영란 현도심	사법행정전공 고대지	동양어문학과국 일어일문전공 정다운	수학교육과 강동훈 허현석 김경표 최석호 신현아 양정은 최정호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홍서인 정응우 김지수 김동현 송민수 김병기	
		국어교육전공 강성미	법학과 강봉숙 변진숙 양술생 오미진	서양어문학과국 영어영문전공 양엘리아 송은아	과학교육과 김요한 김소연 신윤경 임종연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고현우	
		영어교육전공 강지나 김승미 김지현 안태규 조용일 현재연	정치외교학과 강세웅	사학과 성훈 송은범 이동호 신소영	사회학과 김요한 김소연 신윤경 임종연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초등실과교육전공 김수정	
		일어교육전공 김대양 박혜옥 이소정	산업대학원 작물학전공 김상현	사회학과 고동혁 김나경	컴퓨터교육과 채호석 오수재 부경민 장용동 정은경	예술디자인대학 한국화전공 양미래	
		사회교육전공 김경란 현길자 김선필	농업경제학전공 백지훈 변대근 허병국 현홍민 고봉주	철학 정보윤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물산업학부 식물자원환경전공 고남길 고범준 신현준	서양화전공 양민희 백민정 박성희	
		역사교육전공 한은미	전기공학전공 김영길	사회과학대학 법학과(야) 여종화 문상석	생물산업학부 원예환경전공 변경환 고담광 오현우 현승보 이준영	관·현악전공 성수현 이종현	
		지리교육전공	농업경제학전공 백지훈 변대근 허병국 현홍민 고봉주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장지훈	원예생명과학부 원예환경전공 명승범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학과 현민정 고인규 박상기 강은종 임은지	
			에너지공학전공 고혜진	화학과	산업융용경제학과 정용욱 김명균 정이슬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이록 이수은	
			토목공학전공				

평양에서 멈춘 고니시… 의병·승병 활약에 좌절

학술기고 임진왜란 420주년 소고



이 기 석
영어영문학과 교수

아, 하늘의 길이 막히도다. 조국의 운명이 위태롭도다. 극악무도한 적도가 하늘의 이치를 거슬러 함선 수천 척으로 바다를 건너 오니 그 독기가 조선 천지에 가득한지라, 삼경이 함락되고 우리 선조들이 누천년 이룬 바가 산산히 무너지도다. 저 바다의 악귀들이 우리 조국을 무참히 짓밟고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하는 광란을 벌이나니 이 어찌 사람이 할 짓이라? 살기가 서린 저 악귀들은 금수와 다를 바 없다다.

조선의 승병들이여!
조선의 승병들이여!
조선의 승병들이여!
조선팔도의 승병들이여!
조선의 승병들이여!
조선팔도의 승병들이여!
일어서시오! 순안의 범참사로 집결하시오! 나 휴정은 거기서 그대들을 기다릴 터이오, 우리 일지단결하여 결전의 싸움터로 웅약 진군합시다!

(서산대사의 조선팔도승병 총궐기문)

420년 전 일어난 임진왜란에서 4월 13일(이후 음력임) 부산에 상륙한 15만8800명의 일본군은 곧 바로 부산진성을 함락시키고 그 이튿날 동래성도 함락시킨 후 파죽지세로 북진을 하면서 상주전투와 4월 27일 탐금대 전투에서 일방적으로 조선군을 궤멸시키고 5월 3일 서울에 입성하게 된다. 조선 침공 후 겨우 20여 일 만의 일이다. 일본군의 서울 입성 바로 직전에 조선의 선조 임금 은 문진을 떠나는데 일본군의 북진 속도를 감안해가면서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다시 평양에서 의주로 피난길에 오른다.

선조의 몽진으로 일본군 사기 저하

총 9개의 부대로 편성된 일본군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군과 가토 기요마사의 제2군 구로다 나가마사의 제3군이 최선봉에 선 주력부대를 이루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로 다른 공격 루트를 타고 진격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1군과 제2군은 조선의 수도 서울에 서로 먼저 입성하고자 적대적이면서도 경쟁적으로 북진을 재촉한다.

서울을 빼앗긴 조선 육군은 최후의 보루로서 임진강을 사수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고 결국 6월 15일 평양이 함락된다. 결과적으로 일본군은 부산에서 서울을 거쳐 평양까지 약 60여 일 간 사실상 완승을 거두

면서 진격해간 셈이다.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서울에서 평양까지 거리의 거의 두 배 정도가 되지 않는가? 단순한 거리상의 비율뿐만 아니라 이 두 구역상의 지형을 보더라도 부산-서울 사이에는 조령과 문경새재 등을 관통하는 협준한 소백산맥과 낙동강, 금강, 한강을 거쳐야 하는 악조건이 많은 반면에 서울-평양 간에는 황해도와 평안남도의 평원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통과하기가 쉬운 지역이다.

그리고 조선 육군의 저항 강도를 보더라도 비록 대패하기는 했지만 이일과 신립이 투입되었던 조선 최정예부대의 탐금대 전투에서 만류 치열한 전투가 서울과 평양 사이에서는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거리상으로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부산에서 서울까지를 20여 일 정도밖에 안 걸려 온 일본군이 왜 그 반박에 안 되는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40여일이나 걸렸을까? 둘째, 일본군 최정예부대인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군은 6월 15일 평양에 입성한 후 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더 이상의 북진을 멈추게 되었을까?

이 의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중 하나는 일본의 전쟁개념과 조선의 전쟁개념이 다른 데서 찾을 수 있겠다. 이는 16세기 양국 간의 국가체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조선의 경우는 중앙집권적 정부형태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전국에 걸쳐 있는 지방 영주들 중심의 정치체제이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서로 치열한 전쟁을 겪게 되는데 한 영주가 다른 영주의 성을 함락하면 영주가 자절을 하면서 전쟁이 끝나고 일반 백성들은 새로운 영주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된다. 즉 대장이 항복하면 그 휘하의 부하들과 소속 백성들은 점령군에 순복하는 식이 된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그 처소가 어디가 되든, 일단 임금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조정도 살아 있다는 개념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임금이 수도를 떠나 어디론가 피난을 가게 되더라도 그 피난 길 자체가 이동하는 정부가 된다. 백성들도 또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서울의 점령이 곧 조선 임금의 항복으로 이어지고 이것으로써 조선정부는 일단락되는 것으로 인식한 것 같은데, 탐금대 전투에서 최초로 대규모 조선 육군과의 접전을 앞두고 고니시 유키나가 자가 자기 병사들을 모아 놓고 “조선 국왕이 있는 저를 수도의 주인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승리를 독려하고 있는데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과 의병으로 활동한 장군들. 묘향산에서 승병으로 활동한 서산대사(왼쪽)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왜군을 무찌른 객주장 장군.

따라서 결과적으로 조선 국왕이 없는 서울의 점령이라는 것은 일본군에게는 기대했던 조선에서의 전쟁의 끝이 아니라 겨우 일개 전투의 끝이었을 뿐, 앞으로도 지리한 전투가 남아있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조선 임금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 평양을 향해 또 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군 병사들에게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5월 3일 서울에 입성한 일본군은 더 이상의 북진을 미루고 5월 18일 임진강을 향해 떠나기 전까지 약 15일 간을 서울에서 체류한다. 이 기간 동안에 일본군은 일단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교토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승전보를 전하고 그 다음 후속 조치에 대한 훈령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일본군 지휘부는 서울에서 향후의 대책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 회의에서 조선팔도를 분할해 각 장수들이 해당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로 한다. 최정에 제1군은 평안도로 가기로 하고 가토 기요마사의 제2군은 함경도를 담당하기로 하고 함경도 끝자락의 회령과 종성을 거쳐 심지어 두만강 넘어 만주의 웅정까지 진격해 들어간다. 그리고 서울까지 같이 왔던 구로다 나가마사의 제3군은 황해도를 담당한다.

그런데 바로 이 조선분할지배정책의 채택이야말로 일본군 실패의 첫 단추가 된다. 서울 입성까지 속전속결이었던 일본군은 이제부터 전쟁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전쟁의 원래 목적이었던 명나라 침공에는 결정적인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 조선의 나머지 지역은 명나라로 가기 위한 길목에 해당되지만 특히 제2군인 가토 기요마사 부대의 함경도 진출은 명나라 침공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무모한 지역에서의 긴 보급로 형성은 일본군 전체의 힘을 분산시킬 뿐이었다.



조선의 의승병군 참전 전혀 예상 못해

한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공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었던 바, 이는 바로 조선의 의병들이다. 조선의 의병들은 자생적으로 일어난 일종의 시민군으로서 일본의 역사에는 없는 조직이다.

향토 지역의 지리에 밝은 조선의 의병들은 일본군의 보급로 차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유교적 전통 속에서 학식이 많고 중앙정부 산하에서 고위 관리를 지냈었던 조선의 의병대장들은 오늘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기반을 두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 주저함 없이 의병군을 조직한다. 조선분할지배정책으로 흩어져 간 일본군들은 조선팔도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조선의 의병들과 전선도 없이 도처에서 싸워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고 보급로 통신에서 사실상 큰 타격을 받는다.

일본군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또 다른 변수로 조선의 승병들이 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조선의 억불숭유정책으로 인해서 승려들은 사실상 설 자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외척의 침략을 받아 임금이 피난길에 오르고 백성들이 도륙당하는 것을 보면서 조선의 승려들은 산 속에 파묻혀 염불만을 외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조선의 승병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다.

조선 국왕의 몽진으로 인한 일본군의 조선전쟁에 대한 대혼란과 이로 인한 일본군의 전의 상실, 개진 초 너무 빠른 진격으로 인해 길게 형성된 일본군의 보급로와 통신망, 오만한 조선분할지배정책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일본군의 전력 분산, 전혀 예측 못했던 조선의 의승병군의 활약과 이로 인한 보급로 차단 등등의 깊은 삼남 속에 평양까지 간 고니시 유키나가는 조선에서의 첫 겨울을 앞두고 거기서 일단 발을 멈춘다.

한권의 책

철학, 시(詩)를 만나 우리에게로 오다



강신주 지음
『철학적 시읽기의 즐거움』



강신주 지음
『철학적 시읽기의 괴로움』

지은이는 486세대로 철학의 일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양철학을 전공한 재야학자이다. 그는 『즐거움』에서 모두 21인, 『괴로움』에서는 14명의 시인과 철학자를 연결시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지은이는 ‘시와 철학은 인문학의 양극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진정한 삶을 복원하기 위해 친숙한 세계를 낯설게 하는 인문학의 본령에 충실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단 한명의 한국철학자를 선택한 것에 대하여, “우리 철학계의 슬픈 자화상의 반영”이고, 20세기 이후 철학을 공부했던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수입상’의 신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이 책에서는 평소 들었던 어려웠던 철학 개념들이 시를 만나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 일상이 아니라 들여다볼 수 없었던 일상이자,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일상들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에 이런 깊은 의미들이 있었는지 세삼 놀라게 된다. 그리고 철학자가 되고 시인이 되고 싶어진다. 철학자가 별건가, 시인이 별건가. 누구나 철학자가 또 시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삶이 바로 철학의 장이자 시의 장이기 때문이다.

가장 철학적 사유와 정서적 감성을 뒤흔든 주제는 사랑과 현대사회에 대한 논의였다. 도종환 시인의 <가구>를 읽으며 <접시꽃 당신>을 기억하는 나로서는 이 두 여자의 대조되는 그림을 상상하며 사랑의 존재감에 대해 생각해본다.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 곁에 영원히 있습니다.” “아내와 나는 가구처럼 자기 자리에 놓여 있다. … 그저 아내는 방에 놓여 있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그림자와 함께/ 육종히 어두워지고 있을 뿐이다.” <접시꽃 당신>의 ‘그녀’와 <가구>의 ‘그녀’는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었던 해도 아마 사랑의 발달 단계에서 보면 앞의 그녀도 뒤의 그녀처럼 되었을 것이다.

지은이는 “접시꽃 같았던 사랑이 가

구와 같은 사랑으로 변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답은 세월이라고 말하고 싶다. 시간 속에서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사랑의 존재론적 숙명>이란 주제에서 “질투란 상대방이 언제든지 나에게서 떠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한다. 사랑을 꿈꾸는 20대에게는 괴로운 진실이다. “사랑에 의한 육체의 드러남은 분리의 공백이라는 유일한 이름 아래 분리 자체의 표식이 생겨나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이다.” “당신이 곁에 있어도 항상 당신이 항상 그리운 것”이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은 사랑한다고 두 존재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이 허상임을 드러내준다.

저자의 지적 능력과 감수성, 탁월한 언어 능력,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철학과 시로 발가벗겨 인간의 숙명적 본질을 드러낸 적절한 분석에서 철학적·논리적 사유와 시학적·감성적 느낌을 모두 지닐 수 있음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즐거움인가? 사유와 감성을 지닌 인간 존재를 성찰하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즐거움이다.

왜 괴로움인가?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본 순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적 한계와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 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숙명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즐거움이라고 다 즐거움만 있지 않고, 괴로움이라고 다 괴로운 것은 아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나약함, 타자와 사회구조의 강력함과 그것을 피할 수 없음에 즐겁고 또한 괴롭다. 신(神)이 아닌 인간이기에 이 숙명을 짊어지고 괴로워하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고자 하며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인간이어서 또 위대한 것이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결국에는 나란 존재의 사유와 느낌에서 온 것이다. 이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적 숙명이다.

강승희
초등윤리교육전문가

STS 과학문화 시사칼럼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STS)에서는 학생들의 과학 사고의 증진을 위해 과학문화 시사칼럼을 연재합니다. STS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ts.jeju.ac.kr>), 트위터 (<http://twitter.com/jejusts>), 페이스북 (<http://facebook.com/jejusts>)

과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도 “세상을 바꾸는 작은 날개 짓 - 나비효과”



박 남 제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장
초등컴퓨터교육전공 교수

햇빛이 누그러진다는 처서(양력 8월 23일)도 지났지만 한낮은 여전히 뜨겁지만 하다.

우리나라는 봄의 꽃샘추위와 황사, 여름 장마와 고온다습한 기후, 가을 천고마비, 겨울 삼한사온 등 사계절이 뚜렷한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특징이 많이 변한 듯하다. 봄의 이상저온과 폭설, 여름의 열대야 일수 증가, 물 폭탄이라고 불릴만한 집중호우와 폭염, 가을까지 이어지는 태풍, 겨울철 한파와 눈 폭탄 등 과거의 ‘이상기후’는 이제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이 된 것 같다.

작년, 태국의 유례 없는 홍수,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수몰 위기에 처한 투발루와 몰디브 등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이상기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

례들을 남의 일로 받아들이나. 왜? 우리나라, 제주도, 우리집은 멀쩡한니까. 게다가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하이브리드차의 상용화, 스마트그리드 등 과학기술만 발전한다면 지금의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당신의 생각은?

2010년 방송된 MBC 무한도전의 ‘나비효과’ 편을 생각해보자. 몰디브 호텔의 에어컨을 틀었더니 실외기의 더운 공기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녹은 물은 몰디브 호텔로 흘러들어 바다는 물바다가 되었다. 양 팀의 합의로 에어컨을 끄지만, 이 상황을 모르는 한 멤버 때문에 결국 이들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라는 재미있는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응답자의 98.9%가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이는 2010년 조사결과인 88.1%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인식정도에 비해 실천은 보통수준이었고, 그 이유는 ‘편리함이 습관처럼 되어서 그냥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혼자 해서는 효

과가 없을 것 같아서’, ‘개인에게는 당장 이득은 없고 힘만 들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2012년 조사는 정보 부족 등 외부적 요인 보다는 내부적 요인에 의한 실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소비문화를 바꾸지 않으면서’로 기후변화 대응 행동 실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마케팅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을 결론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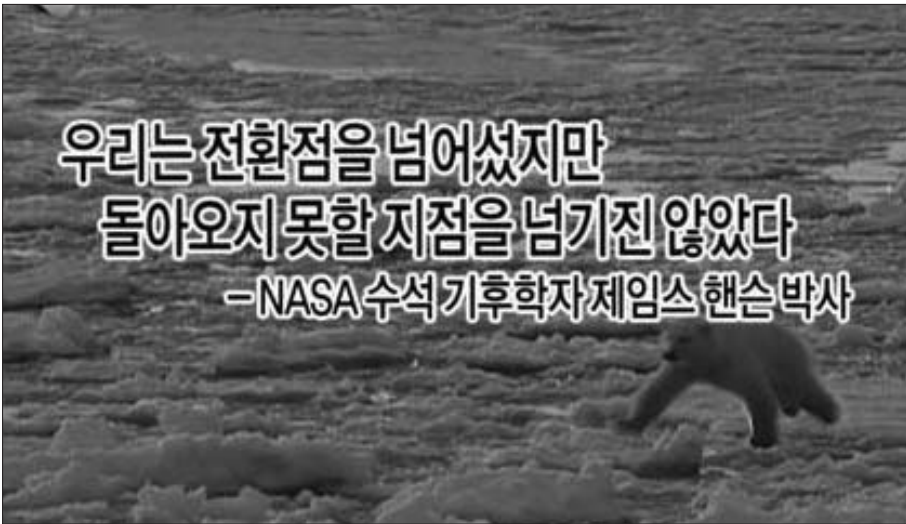
‘나’의 인식과 습관을 바꾼다면 정말 ‘나비효과’에 의해 이런 문제들이 점차 나아지고 해결될 수 있을까?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GMO 식품에 대한 안정성 논란, IT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반대급부로 스마트폰 계급도 현상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생기기도 하고,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한 다양한 사례(저소득층을 위한 기술인 ‘침단’보다 ‘사람’을 향하는 따뜻한 기술을 표방하는 적정기술, 환경보호와 독특한 디자인을 더한 업-사이클링, 트위터를 통한 긴급 수혈 등)들도 생기고 있다.

콩코드를 만들었던 루카스 항공사(Lucas Aerospace) 엔지니어들은 콩코드(Concorde)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적 정교함을 가지고 있지만, 언급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을 체온저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한 난방체계조차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다는 고민을 했던 것처럼 과학과 기술을 역사적이고 사회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관점을 STS(Science and Technology in Society)라고 한다.

2012년 7월에 설립된 제주대학교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는 최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과학기술과 사회(STS) 관련 연구 및 소통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과학문화 기반확충과, 새로운 과학문화 실천과제 발굴 및 과학이슈 소통 활성화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2월까지 [STS 과학문화 시사칼럼] : 당신에게 과학이란]을 통해 다양한 과학문화 및 사회적 시각과 접근을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4대강 정비 사업, 고리원전 1호기, 올레길 CCTV 설치, 제주도의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탐돔 공유수면 추가매



MBC 무한도전 나비효과 특집의 한 장면. 우리가 환경을 많이 파괴시켰지만 지금부터라도 노력한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제임스 헨스 박사의 말.

립 계획, 강정의 해군기지 건설 등 이러한 현대의 전 세계,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현안에 관한 이슈들은 이제는 과학기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 19일은 18대 대통령선거일이다. 벌써 차기 대권 주자들은 제주해군기지, 제주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표심을 노리고 있다. 유

권자로서 제주도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STS적 마인드를 가진다면, 포퓰리즘에 기댄, 공약(空約)으로 끝나고 마는 공약(公約)을 낱발하는 정치문화에 비판을 가하고 응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나비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멸 위기 제주어 교육, 현실언어 중심으로 전환해야

제주방언연구회 하반기 학술모임

제주만의 독특한 언어인 '제주어'. 그러나 날로 그 모습이 사라져 가는 지금, 제주어의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 것이며 그 의의는 무엇일까. 지난 17일 제주방언연구회는 '제주어 교육'을 주제로 하반기 학술모임을 가졌다. 이날 발표한 연구논문의 요약본을 통해 제주어 교육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자.

방언의 교육적 의의

강 영 봉(국어국문학과 교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07년 3월 '제랑활동 시간'에 사용할 교육자료로 <제주어 교육자료>를 제작,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초등학교는 17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7시간으로 제주도 특징이 드러나는 민속 문화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재량 시간에 활용할 자료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제주도방언 교육자료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회를 거듭하면서 자료의 내용은 세롭고 알차게 구성될 것이다. 여기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통으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앞날을 기약하고자 한다.

제주어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김 성 용(귀일중학교 교사)

유네스코는 2010년 12월 제주어를 '심각하게 위기에 놓인 언어'로 지정했다. 제주어의 소멸 위기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소멸 위기의 제주어를 가만히 지켜만 볼 일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제주어를 접할 기회와 제주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우선 학교에서 제주어 교육을 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시간 확보다. 학교 교육과정상에는 제주어를 필수로 넣을 수 없지만, 창의적 재량활동(중3), 창의적 체험활동(중1,2)을 10시간 정도 확보하고, 동아리 활동 시간을 활용하면 된다.

제주문화로 배우는 따뜻한 마음

문 미 희(신광초등학교 교사)

제주어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 서로 함께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제주문화로 배우는 따뜻한 마음'이란 주제로 한 걸음씩 실천해 보았다. 우선 '다양한 제주어 학습을 통해 바른 인성을 형성한다'는 실천 과제를 설정했다. 즐기면서 배려를 기르는 도우미 활동 우리 학교(신광초) 축제 첫날, '제주어 코너' 부스를 만들어 우리 반 학생들이 도우미 역할을 했다. 제주어 코너 이름은 '제주어 낱말 맞추기'로 제주어와 표준어가 맞게 짝을 맞추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위해 우리 반 어린이들에게 기본적인 제주어를 익히게 했다. 학생들은 제주어의 소중함을 알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 소중함을 알리는 데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한 제주어 동화

표기법과 발음

첫째는 표기법과 발음 문제다. 아래아가 남아 있다고 해서 아무 어휘에나 아래아를 쓴다거나 '있다'를 '있다'처럼 'ㅁ'을 받침으로 쓰거나 하는 것은 잘못이다. '외'로 북모음으로 받음되므로 당연 '웨'로 표기해야 옳다. <제주어사전> 부록의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해야 할 것이다. 또 아래아가 쓰인 어휘가 있으면 '아래아'의 발음 즉, 후설저모음으로 받음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오'보다 혀를 더 뒤로 한 후 혀를 좀 더 구부려 발음하면 된다는 이론상의 원칙이라도 지도해야 할 것이다.

확석화된 제주도방언에 치중

둘째는 대화 중심의 자료 구성이 아쉽다. 방언은 현실 언어로 입말이 중심이다. 그런데 교육자료 대부분은 화석화된 제주도방언에 치중하고 있

다. 화석화된 방언 중심으로 교육자료가 구성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 유발은 물론 동기 부여라는 방언 교육의 목표는 자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상황 설정이 된 이윤금의 <제주도사투리>를 이용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설명 오류

셋째는 설명에 오류가 많다는 것이다. 중학교 자료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낱말 익히기'에 '냉바리'란 어휘가 나온다. '결혼한 여자'란 뜻으로 풀이한 '냉바리'는 '비바리'에서 유추한 해석인 듯하나 이는 잘못이다. 간혹 '늪은 여자 가운데서도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빗대어 '냉바리'라 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속어여서 '냉바리'를 결혼한 여자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한다.

우리 학교(귀일중)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확보하여 제주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0학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속담으로 배우는 제주어'를 활용하여 제주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는 방송을 활용하여 제주어 화상수업과 화상으로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연 2회나 실시했다. 요즘은 학교마다 방송실이 잘 돼 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각 교실에서 제주어 교육을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실에서 화상수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화상수업 3시간 정도는 제주어의 특징에 대해

문학 작품의 제주도방언화

넷째, 문학 작품을 제주도방언으로 바꾸는 말장난은 삼갈 일이다. 특히 고등학교 자료가 심한 편이다. 모 가수가 부른 '어머나' 정도는 가사를 바꿔 부르기로, 언어 유희로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박재삼의 '일월 속에서'나 고전 작품 '가시리' 등을 제주도방언으로 바꾸는 것은 문학 작품이 지닌 제 맛을 떨어뜨리는 일에 속한다. 특히 시는 언어 예술이기 때문에 삼갈 일이다. 차라리 제주도방언으로 쓴 시를 선택하여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고(실제는 제주 작가의 제주도방언으로 쓴 시 5~6편이 들어가 있음), 고전 작품은 "어휘 가운데 제주도방언과 비슷하거나 같은 어휘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아래아가 들어간 어휘를 발음해 봅시다" 정도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좋을 것 같다. 위에서 설명한 제주어의 특징을 참고로 하여 첫 시간에는 음운의 특징, 둘째 시간에는 문법의 특징, 셋째 시간에는 어휘의 특징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제주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어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제주어 교육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체계적인 제주어 교육 자료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제주어교육연구회가 2011년 조직돼 제주어 교육자료 개발, 제주어 교육방안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회원들은 제주인의 삶과 문화가 담긴 제주어를 채록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구어체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학생들 대상의 교재 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울' 간에 기록하게 했다. 학생들은 배려하는 마음은 물론, 정직, 약속, 협동, 책임 등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인성 덕목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됐다. 가족 사랑을 키우는 제주어 일기 쓰기 우리 반은 제주어 일기를 토요휴업일 과제로 쓰고 있다. 제주어 일기는 부모님께서 함께 제주어를 생각해 주셨을 때 더욱 알찬 일기가 된다. 제주어를 외국어마냥 여기는 학생들이 많은 상황에서 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가족과 함께 제주어를 말하고 일기를 쓰면서 학생들의 제주어에 대한 관심은 물론 가족 사랑도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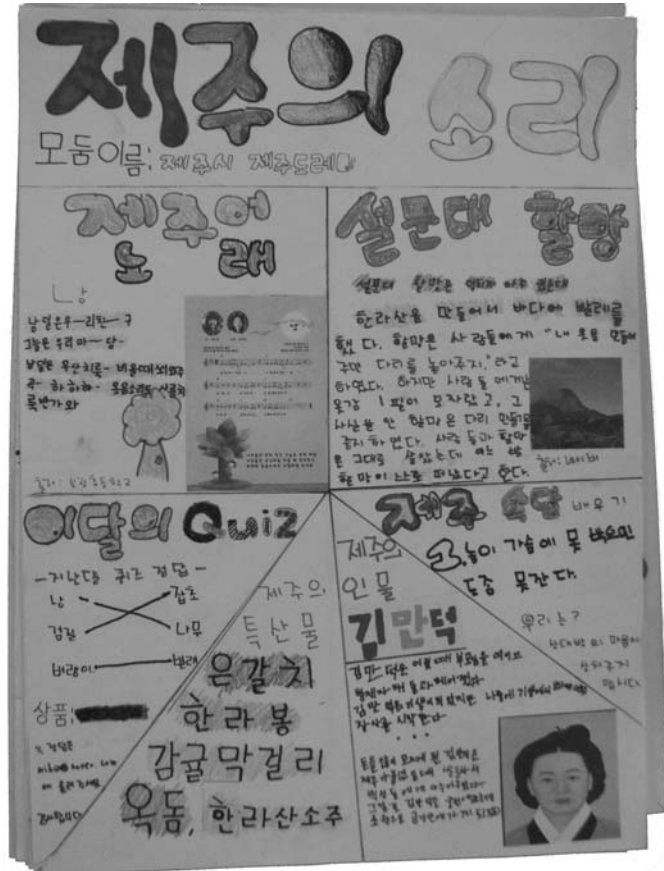
가족들의 정을 담은 제주어 가족신문

제주어 가족신문은 지면 구성이 제주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활동을 안내하기에 앞서 우려가 컸다. 학생들이 단지 부모가 해줄 힘든 속제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한 활동과 제주 문화를 제주어로 알차게 구성했다. 가족이 다 함께 가족신문을 제작하니 가족간 정도 생기고 제주어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도 다시 하게 되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제주어 신문 만들기에 열성을 다하는 학생들
사진제공=문미희 교사



학생들의 손으로 만들어 낸 제주어 신문
사진제공=문미희 교사

'제주어 낱말맞추기' 연재 예고

본지 9월 12일자 제875호부터 '제주어 낱말 맞추기' 코너가 마련됩니다.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강연 초록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하여

“제주해군기지, 미군기지 될 것”

“해방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게 제주도를 미군의 영구적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제주가 군사적 요충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미국과 우방관계를 돈독히 하는 현재 정권에서 짓고자 하는 해군기지가 미국의 군사기지화 될 소지가 충분하다.”

이영권 (영주고 교사)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제주시 노형동 정다운마트 2층 교육문화카페에서 열린 '제7회 대학생과 함께하는 풀뿌리학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주최한 이번 강연은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하여-평화의 섬이 될 것인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영권씨는 이날 강연에서 1948년 3월 28일에 있었던 미국의 드래퍼 차관과 이승만 대통령 간의 회담을 정리한 다음의 문건을 들었다. 이씨는 “수집 기록에 ‘그는 한국 정부가 수립되면 한국인들은 매우 기꺼이 미국이 제주도에 영구적인 기지를 설치하도록 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라고 기록돼 있다”고 제시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제주 해군기지에 미군이 주둔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무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씨는 이와 함께 제주도가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는 왕 세조, 쿠빌라이 칸이 남송과 일본 정벌을 위한 전진기지였다고 설명했다. 1895년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을 당시 러시아와 일본이 제주도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호시탐탐 대결했다는 것이다.

또 이씨는 “제주도를 한반도에 귀속되는 부속도서라는 우리 민족의 시각과 달리, 주변 열강들은 한반도와 별개의 군사적 요지라고 인식한다”고 주장했다. 외부 열강들이 1945년 9월 포츠담회담에서

제주도를 한반도와 별도로 무장해제시킨 점,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제주도를 별도 기재한 점을 들었다. 이씨는 “제주도의 군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것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가 외부 열강이 제주도를 호시탐탐 노렸다는 사실을 가져와 설명한 것은 자주국방을 위해 “제주도를 군사기지와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한 정치는 아니었다. 오히려 제주에 있는 군사기지는 국방을 지키기는커녕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위협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씨는 “1945년 2월에 미군과 일본군 간에 발발한 오키나와 전투

에서 미군과 일본군이 8만명 사망한 반면, 오키나와 주민은 무려 12만명이나 사망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통해 이씨는 “평화를 위한다면 해군기지가 제주에 절대 들어서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한반도 주변의 평화가 정착되기 위한 조건도 제시했다. 일단 남북관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그 외에도 △북한과 미국 간의 평화조약 체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군비축소 △북한의 비핵화와 이 같은 사항이 이행되기 위한 각국의 노력 등도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권씨는 “이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한반도의 종립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역설했다.

김명지 기자



이영권 영주고 교사

국어국문학과·국어문화원 주최 제11회 전도 고교 논술대회 대상작

자본주의 성장이 인간을 행복하게 했을까

지난달 25일 국어국문학과(학과장 김상조)와 국어문화원(원장 강영봉)이 공동 주최한 '제11회 전도 고등학생 논술 경시대회'에서 박광홍군(서귀포고3)이 대상을 수상했다.

20세기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 사상을 골자로 하는 경제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가운데, 그동안 사회주의와 케인즈주의 강세로 그 불길에 약해졌던 고전 자본주의에 관한 논쟁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최대이윤과 최대효율, 사익추구의 정당성에 관한 고전 자본주의의 주장들이 일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본질적 가치들을 망각한 채 현재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이론적, 철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시대착오적이고도 비인간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의 대부라 할 수 있는 애덤 스미스는 저서인 <국부론>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한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키는 경우가 흔히 있다. 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서술하며 개인의 사익추구가 공익추구보다도 더 사회공익을 증진시킨다는 역설을 펼쳤다. 굳이 국부론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학교에서 많이 들어본, 그리고 현재 세계 다수 국가들의 경제 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익숙한 논리이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논리는 정말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일까? 이익을 추구하는 자제가 좀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의 발전 배경 중 주요 요소로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꼽았다. 물론 칼베의 직업 소명설 같은 신학이론들이 상공임 계층을 고무시켜 근대 자본주의에 큰 비로가 된 것은 사실이

다. 하지만 그같은 신학이론들은 어디까지나 신이 내린 소명을 수행한다는 사명 속에서 급속적으로 행해진 것이었지, 결코 무분별한 사익추구를 장려한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복음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좇으며 이웃을 돌보지 않는 이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이렇게 본다면 ‘자신의 이익을 쫓으면 자연스레 이웃들의 복리도 증진된다’는 애덤 스미스의 논리는 기존의 신학과 모순되는 것으로, 사익추구를 장려하는 자본주의의 약진이야말로 서구의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붕괴시켰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인간의 욕망에 호소한 자본주의는 결국 계급을 발생시켜 사익추구라는 미명하에 인간을 도구로 격하시켰다. 빈부들은 사익에 눈이 먼 지주와 젠트리(영국의 귀족이 아닌 신사)에게 쫓겨나 터전을 잃은 떠돌이가 되었고,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일하는 기계’가 되어 자본가 계급의 사익 창출을 위한 소모품이 되었다. 이런 세상이 애덤 스미스가 말한 세상은 아닐 것이며,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창시자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이런 세상을 지탄할 것이임 분명하다. 사익추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반대로 ‘더 나쁜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주장도 또한 사실임을 역사는 조용히 증언하고 있다.

더 나은 세상. 그것은 인간의 동물적 욕망에 근거한 사익추구에서 태어날 수 없다. 개인의 사익추구가 이웃들의 배고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웃들의 배고픔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다. 사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배고픈 이웃의 빵까지도 빼앗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는 인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맹자의 주장은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유효한 면을 가지는 것이다.



박광홍 서귀포고3

교수신문



임재운
통신공학과 교수

“
현장실습생들의 성실한 태도와 바른 심성을 통해 제주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호감을 갖고 지속적인 취업을 약속 받았다는 것이 큰 성과”

백록담

백록담은 강정마을

국가 공권력은 강정주민들에 폭력적 진압 ‘공갈빵’

민군 복합항 사기에 주민들은 이명박 정권 향해 ‘죽빵’

박근혜, 강정을 진주만으로? 전쟁기차 만들겠다는 거니 ‘모닝빵’

현 정권과 해군에게 굶실굶실 못난 제주도정은 ‘곰보빵’

그러거나 말거나 삼선건설과 대립건설 배만 ‘뽕빵’

국가 정책은 그 누구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식빵’?

사업에 앞서서 국민과 먼저 소통해야 효과 ‘직빵’!

하계 실습현장의 취업 열기

최근 청년취업은 갈수록 한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전략본부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 까 하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현장 실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부터는 LINC사업단과 함께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현장실습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고 있다. 현장실습 매뉴얼을 만들어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실습 시 담당 교수님들이 직접 방문 격려하며, 실습 후 보완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도의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있는 13명을 2회에 걸쳐 방문하였다. 첫 주는 경력개 발맞춤형 인재육성사업에 참여한 7명의 학생들의 현장실습지를 방문하였다. (주)유비스티는 서을 구로다지탈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통신관련 벤처회사로서, 이득우 대표이사님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실습중인 2명의 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했고 학업을 마친 후 바로 취업시키겠다는 약속과 산학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근처에 위치한 (주)다림비전은 방송장비/서비스 전문업체로서 3명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영대 회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학공동과제를 추진키로 했고, 이 과제에 실습중인 학생들을 투입하여 취업과 직접 연계하였다.

준동물병원에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2명의 수의학과 학생 및 안준영 원장님과 실습관련 다양한 논의를 하였으며, 매년 2~3명씩의 현장실습생을 받고 필요시 주위에 많은 취업 추천을 해 주기로 협의하였다.

그동안 ‘CEO에게 듣는다’에서 강의를 맡아 주셨던 CEO분들의 회사에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고자 관련 회사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하였고, 그 중 3개 회사에 6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게 되었다. 2주째는 전자공학과 의 이광만 교수, 김중조 석좌교수와 함께 현장실습 중인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관련회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처음 방문한 곳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진공로봇 전문 제조회사인 (주)싸이맥스였다. 이미 2명의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였고, 이번에 2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었다. 김성강 대표님의 특별한 배려로 실무적인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수행케 하였고, 2학기부터는 본교에서 맞춤형 취업트랙을 실시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김중조 석좌교수님이 회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주)에드워드코리아를 방문하였다. 이성민 사장님의 환대와 1만3000 평 부지 위에 들어선 웅장한 공장건물과 생산현장을 견학하면서 세계 제1의 진공펌프를 한국에서 생산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곳에서 제주대학교 학생 2명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는 데 큰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현장실습 및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남 아산에 위치한 종합 FA 제조업체인 (주)에버테크노를 방문하였고, 정백운 대표이사님과 2명의 실습생들과 함께 회사의 현황과 향후 취업 등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취업에 있어 교수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대표이사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의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취업에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과로는 방문한 현장실습생 13명 모두에 대해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취업을 약속받았고, 그 중 1~2명의 학생은 좀 더 준비하기로 해 아쉬움을 남겼으나, 좋은 일자리로의 맞춤형 취업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현장실습생들의 성실한 실습태도와 바른 심성을 통해 대부분의 회사 임직원들이 제주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호감을 갖고 향후 지속적인 취업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큰 성과였다. 이밖에도 LINC 사업단을 중심으로 하계방학동안 총 142명의 현장실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으며, 2학기에도 다양한 맞춤형 현장실습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등문칼럼

당신의 장래 희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김지숙
국어국문학과 97학번
신성여고 교사

필자는 국어국문학과 97학번이다. 90년대 후반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던 때, IMF의 후폭풍이 몰아치기 전이며, 투쟁으로 무장한 ‘센’ 대학문화에서 ‘센스’ 있는 다양한 대학문화로 넘어가던 시기였다. 또한, 그때의 대학 생활은 취업 준비로 얼룩지지 않고, 대학 문화를 즐기고, 학점보다 전공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대학의 현실은 각박한 것 같다. 우리 때보다 이른 시기에 취업을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먹고 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청춘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학생이 된 필자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듯 몇 마디 해 보려 한다.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라.’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학급 학생들과 상담을 실시한다. 인문계 고등학교라 그런지 학업(성적)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장래 희망에 대한 고민이 많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교육 수업이 있지만 교사 중심의 수업, 글로벌 배우는 수업이라는 한계 속에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현실로 구체화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헬리콥터 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의 삶에 너무 적극 개입하고, 반면 자식들은 자신의 삶에 너무 소극적이다. 학생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지를 누군가가 답을 주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대학에 가서도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까’의 문제에서 스스로 해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이러한 고민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삶을 디자인해야만 한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수고로움을 즐길 필요가 있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요즘 대학 입시는 본인의 희망 진로와 관련한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봉사 활동을 해야 유리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장래희망을 빨리 찾아야만 할 것 같아 마음이 급해진다.

대학생이 돼서도 장래 희망이 불확실했던 필자가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전공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는 바람과 복수전공 하듯 맘 편히 시작한 교직이수 덕분이었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되리란 생각은 교생 실습을 경험하고, 기간제 교사로도 재직해 보고, 임용시험을 준비하기도 하면서 좀 더 구체화되었다.

이렇게 장래 희망은 처음에는 관념적인 꿈에 불과하다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씩 구체화되는 것 같다. 무엇보다, 필자는 그런 고민의 순간에 결국 내 마음이 원하는 바를 쫓았다.

“뭐 그래도 실패가 두려워 부딪혀 보지도 않고 일찌감치 무엇을 먹고 살지 걱정하는 것도 머 그것도 좀 서럽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일 보다는 하고 싶은 일에 먼저 부딪혀 보자 인생 한번뿐이 다 아이가.” - ‘응답하라, 1997’ , 9화 ‘장래희망’

진로 상담을 하게 될 때면 필자는 아직도 고민하곤 한다. 특히, ‘저는 ○○이 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반대해요.’ 라고 할 때 흔들리는 학생을 탓하기보다는 안정을 제일로 추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 아닌가? 장래 희망을 정할 때 우선순위를 ‘하고 싶은 일’에 두었으면 좋겠다. 노동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 우리나라답게, 필자 역시 집에 있는 시간에 비해 학교에서 보충하고 자습 감독까지 하다보면 일터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월급통장에 돈 들어오는 시간 빼고는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싶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면서 삶의 가치를 깨닫고, 의미 있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

제자 같은 제주대학교 후배들에게 섣뚱 말은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나 밑지 모르겠다는 부끄러움도 든다. 그저, 가볍게 읽고 잠시 생각해 볼 시간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독자기고

입었어도 벗었어도 함부로 손대지 마라



진보라
국어교육과 2

고려대 성추행 사건이후 슬릿워크 1인 시위가 시작되었고 지난해 7월 16일 ‘잡년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행사가 열렸다. 여성들이 과도하게 아한 옷을 입고 행진을 하는 슬릿워크는 여성들의 옷차림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잘못된 인식에 대한 저항운동이다.

여성의 옷차림을 보고 성욕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성욕이 ‘성폭행’이라는 범죄로 나타날 때 그 책임은 여성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관점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있다. 성폭행은 아한 피해자의 옷차림, 피해자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고, 가해자가 순간적인 성욕을 참지 못해 일어난 실수라고 사건을 옹호하는 발언들이 그 일부부터이고 할 수 있다.

아하게 입은 여성을 ‘짜게’ 보인다고, 그렇다고 성폭행 당할만 한 대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단지 옷차림으로 한 대상을 짜게 보인다고 타인이 판단할 근거와 기준은 없다. 또한 성폭행을 당할만 하다는 말은 피해자를 하위계층적인 객체로 전락시키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

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돈이 탐난다고 은행을 타는 행동이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고 있다는 불편한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슬릿워크는 남성이라는 집단을 ‘죄’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성폭행은 가해자의 본능이 아닌 권력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성 억압적인 구조의 존재를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슬릿워크는 일차적 슬로건인 “내 몸에 대해서 만질 권리가 없다”라는 말을 넘어서 성소수자, 군대 성폭행 피해자 등의 다양한 세속 열리티의 권리를 주장한다. 슬릿워크를 단순히 ‘벗은 여자들의 행진’이 아니라 성에 대한 주체적 결정권을 주장하는 운동으로 봐야할 것이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며 옹호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비판과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보호와 안전 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옷차림이 야해서, 평소 행실이 문란해서 그래도 마땅하다는 비난은 피해자를 더욱 멍들게 할 뿐이며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과 관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성범죄는 사라지기 어렵다. 이제 잘못된 성관념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다.

성범죄에 대한 기사 댓글란에서 피해자의 부주의와 옷차림 등을 탓하는 댓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슬릿워크 사진이 있다. 긴팔 긴바지를 입고 행진하는 그 여성이 들고 있는 피켓은 우리에게 말한다.

“나는 긴 바지에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 그것도 내 잘못이야?”

일 우익단체의 반한(反韓) 시위 명분 없어



김세롤
일어문학과 1

지금 일본에서는 반한(反韓)의 분위기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의 직접적인 사과를 언급한 것이었다.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군대 위안부 문제 등 식민지 당시 일들을 사과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우익단체들에게 큰 비난을 받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일본 각료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섰고, 우익 단체들은 반 한국 시위를 점점 확대해 나갔다. 지난 2009년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뒤 각료가 신사를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일본의 언론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대서특필하면서 한·일 외교 갈등이 건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부터 계속 한·일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왜 이러한 갈등은 끝없이 지속되고 도리어 심화되어 가는 것일까?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다.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는 나에게 한국과 일본의 관계 문제는 민감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에,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현재 두 나라의 다름은 독도와 더불어 위안부 사과 문제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 당장 명확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제

럼 당사국이 성의를 갖고 노력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 그러한 성의가 일본에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다름의 원인일 것이다.

일본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 영토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진심으로 한국 식민 지배를 반성하고 있다면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인 독도에 대한 역사 영유권 주장부터 거두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일본은 아무런 반성의 기미 없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표기한 교과서의 발행을 늘리고만 있으며, 이 어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일간의 외교적 긴장감이 높아진 배경에 일본이 해야 하고, 했어야 했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만이 커져 있다는 사실부터 자각해야 한다.

우리나라 또한 일본에 대한 나쁜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역사 속 아픔을 기억해나가며 일본의 진실된 사과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제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소속, 계좌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원고료 2만원.

-보내실 곳 : press@jejuu.ac.kr

Like

제주대신문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제주대신문 페이스북 주소 : facebook.com/jnupress

